**HI-ARC**

**2020-2 HI-ARC 자율 스터디 활동 보고서**

|  |  |  |  |  |  |  |
| --- | --- | --- | --- | --- | --- | --- |
| 스터디명 | BOOK++ | | | | | |
| 학습일시 | 2020.10.11 | 진행차수 | 3 | 학습시간/장소 | | 30분/카카오톡 |
| 참석자 | 권예빈(서명) | 이주현(서명) | | | 박장성(서명) | |
| (서명) | (서명) | | | (서명) | |
| 구분 | 내용 | | | | | |
| 학습목표 | Betting과 Shape의 차이점이 뭔지 생각하며 읽는다.  part 3의 building의 내용을 예측해본다.  betting part를 어떻게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본다. | | | | | |
| 학습 방법  및  학습 내용 | part2에서는 betting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part1의 shape과 part3의 buiding을 잇는 파트인 만큼 shape과 비교하면서 읽는 데 중점을 두었다.  챕터 7 bets not backlogs에서는 이제 pitch다음의 과정, 드디어bets에 관해 설명을 한다. backlogs는 과거에 논한 적이 있는, 지금은 we all know we’ll never have time for인 tasks들이다. backlogs들은 old ideas prevents everyone from moving forward이기 때문에 backlogs가 아닌 just a few well-shaped, risk-reduced options에 집중을 해야한다.  또 pitch가 좋았지만 betting하는 데 실패했으면 anyone who wants to advocate for it 이 lobbies for it six weeks later해야한다. 즉 6주가 지난 다음에, 이번 사이클 후에 다시 pitch를 해야한다. 그리고 shape과 bet을 합쳐서 6주가 아니라 각각 6주라는 것도 상기시켜준다. 챕터 8 the betting table에서는 betting table과 bet의 의미를 설명한다. betting table은 6주의 사이클이 끝난 뒤 2주간의 cool-down기간에 열리는데, stakeholders들이 모여서 다음 6주 동안에 뭘 할 지 논하는 meeting이다. stakeholders이란 c-level, 즉 the highest people in the company들이다. bet은 1. payout이 있다. 그저 기대감에 차서 잘되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work을 into a six-week box로 shape해야 한다. 6주후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고로 pitch에서 specific payout(치뤄야할 대가)를 명확히 해야한다. 또한 bets are commitments 즉 6주 계획을 bet했으면, team에게 6주를 온전히 맡기는 것이다. 일일히 간섭하지 않는다. 그저 6주 후의 bigger movement of progress를 기다린다. 챕터 9 place your bets에서는 bet 방법이 existing products인지 new products인지 여부에 따라 방법이 나뉜다고 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standard shape up process를 따른다. shape 하고, bet 하고 build하라고 팀한테 준다. 그리고 6주 후에 결과를 보면 된다. new products의 경우에는 다르다. R&D모드, Production 모드, Clean up 모드가 있다.  betting 단계를 요약하면 pitch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6주라는 시간과 예산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파악하는 작업이다. bet이 성사되면 이런 식으로 올린단다.    “우리 이거에 bet할 거에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프로그래머, 디자이너) 6주 동안 작업에 참여할 겁니다” | | | | | |
| 활동 후기 | 이번에 만남 방법을 디스코드에서 카카오톡 채팅으로 바꾸어 보았는데, 디스코드로 진행할 때보다 훨씬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아마 다음부터는 채팅을 통해서 이루어 질 것 같다. 이번 주까지 해서 세 개의 파트 중에 2개를 읽었다. 이제 마지막 파트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주일에 읽는 분량이라던가, 기말고사에 쉬는 기간을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shape up이라는 책이 비즈니스 관련 책이다 보니까,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써먹을만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공통된 의견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에 녹아있는 flexible spirit은 본받을 만한 것은 분명하다. 1주차보다 2주차가, 2주차보다는 3주차가 더 체계가 잡혀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만큼 스터디원들이 멋진 스터디장이 이끄는 대로 잘 따라와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사실 스터디장이 이끌지도 않는다. 스터디원이 이끄는 스터디인 것이다.  4주차에는 part3과 part1, 2의 차이점이 뭔지, building 파트에서는 무엇을 얻어갈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는 것으로 약속을 하며 만남을 끝맺었다. | | | | | |

**유의사항**

* 아래의 유의사항을 모두 지켜주세요. 어길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분량 제한이 있습니다. 1차수 당 3매 이하로 작성해 주세요.
* 공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단순 나열은 지양해 주세요.
* 학습 진행 상황을 알 수 있게 기재해 주세요.
* 기타 공부한 자료는 별첨 자료로 첨부해 주세요.
* 매주 작성한 활동 보고서는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 해 주세요.

(2주 이상 미 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글자 포인트는 10pt로 작성해주세요.